



「가만있자, 귀가 안들리다고, 아!
있다 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비
인후과 진료를 하고있는 광영.

영중면 무의촌 진료를 마치고

● 박 원 응

인생이란 단순한 공수래 공수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박 5일간의 영중면 진료를 마치고 우리는 분명히 얻은 것이 있었

고 남긴 것도 있었다. 농촌의 현실을 실감하고 우리도 농촌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한 것이 전자이고 조그마한 진료를 통해서 농촌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

었다면 후자일 것이다. 이때 의대생과 서원의대생이 뜻을 합해 이루어진 이비-진료회는 이번에 진료로는 처음으로 무의촌에 첫발을 디뎠다. 처음인 만큼 준비에도 세심한 주의

를 기울였고 또 온힘을 다해 우리회원은 하나가 되어야 했다.

첫날 진료 시작전의 병원장을 맡으신 선배님의 간곡한 주의들은 후에 각자 생각할 수 있는 묵상시간을 가졌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수구리니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피부에 느껴져 왔다. 의사이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진료소에 들어서니 한층 긴장감이 들었으나 태연함을 가장하며 각자 말은 후에 열심히 하는 회원들과 한마음이 됨을 느꼈다. 접수, 안내, 진료, 처치, 투약부의 각 회원들은 벌써부터 능숙한양 일사분란하게 움직일때 그들의 얼굴에는 다른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번 가뭄으로 농사가 어려웠다면서요?” 하면서 환자의 팔에 혈압계를 대는 회원은 벌써 의사가 다 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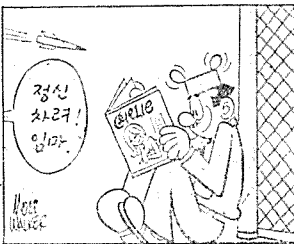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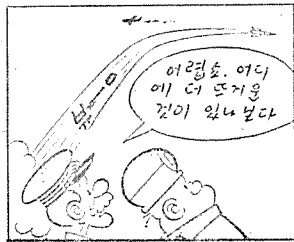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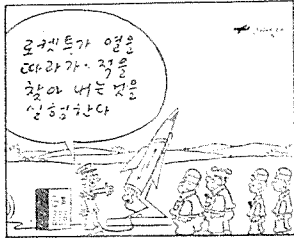
습이다. 처치실은 특히 인기가 높은 곳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두 주사 맞기를 원했고 또, 주사만 맞으면 낫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았다. 정맥주사는 처음 해보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신기했다. 혈관을 올바르게 찔러서 주사기 내로 피가 확 들어 올때는 뿔듯이 기뻐다. 약국은 진료소에서 가장 바쁜 곳이다. 유발에 약을 넣고 가루로만 들어 일회용치로 정확히 나눌려는 그들의 손이 조제용 책상위에서 한참 부산스러웠다 이렇게 4일동안 초진만으로도 육백명이 넘는 환자가 다녀갔다. 특기할 만하게는 전에 탄광지대여서인지 결핵환자가 눈에 띄었다 미리 보건소장님과 말씀할때로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곤 했다.

다른 한가지는 소아과 환자중 홍역 후유증으

로 감기를 앓고 있는 어린이가 많았다는 점이다. 진료가 끝나던 날 한 환자의 어머니가 농사를 지은 옥수수를 한 아름 가지고 왔을때 우리는 모두 누구라도 좋을 그분에게 감사할 드리며 비록 옥수수 몇 개이지만 가슴 깊이 파고드는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방의학부에서 소독통을 등에 메고 내리찍는 태양 아래서 환경소독을 끝내고는 얼굴을 붉게 태우고 돌아와서 마을마을의 소독했던 웅덩이, 우물 변소 등을 이야기 할때 그들에게서 봉사 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체변봉투의 분배에서부터 3일 동안 좋지못한 냄새를 맡아가며 대변검사를 실시하여 사백명에 가까운 이환자에게 투약한 것이며, 영중면이 간디 스토마 오염지역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낸 기생충학부에 또한 찬

네 틀 쫓

월드·위커



사와 더불어 그 성과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가족계획부에서 계획했던 슬라이드 상영이었는데 시간이 되어도 주민 몇 분 밖에 오르지 않아 중지할 것인

가 옥신각신 하다가 농협의 넓은 강당을 그 몇 분과 우리 회원들이 참석하여 진행할때는 실망도 대단했었다. 농번기라는 점과이 제회를 다른 것으로 구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이제 우리는 왜 의학을 공부하는가를 알기 시작했다. 우리를 필요로 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어 했고, 또 알기 시작한 것이다. 첫 진료인 만큼 부족한 점도 많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이러한 것을 연구 검토하여 다음 진료에서 보아달 찬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이을 진료회장>

편집 위원

김은우 아화여대 시정차
교육과 교수
성유운 보사부 보건국장
허영득 문교부 체육국장
이순형 중앙의대 기생충
학 교수
최원영 가톨릭의대 기생
충학 교수
이우복 기협 사무총장
한리국 기협 기획부장

편집후기

▷...여름방학 직전, 사춘기 중학교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쏘아지는 이른바 집단전환신경증(노이로제)이 발생한 적이 있다. 사회환경의 불안, 자기자신의 불안 등 모든 요소가 중첩된 것일게다.

▷...이에 쇼크를 받아 「정신병과 건강생활」이란 주제로 특집을 꾸며 보았다. 현대인과 노이로제—숙명적인 현상이랄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결실의 가을이듯 인생의 결실도 충실히 맺어보는 사색의 가을이 아쉽다. 멋있게, 그리고 알차게 가을을 결실하자.

▷...9월, 10월은 구충의 계절, 학생결변은 일단 께도에 울랐지만 아직도 일반국민의 구충율은 극히 저조하다. 이런 뜻에서 우리 「기협」도 국민 자조방역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거니와 국민 각자의 높은 驅虫意識이 아쉽다.

<C>